

# 숲탐방 체험을 마치고

“ 지난달 광주 각화초등학교에서는 푸른숲선도원 숲탐방 체험활동을 하였습니다. 숲탐방 체험을 마치고 김병현(각화초 푸른숲선도원 6학년 3반)어린이가 대표로 애국조회 시간에 전교생에게 느낀점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숲과 나무를 통하여 많은 것을 보고 느끼는 푸른숲선도원들이 자랑스럽습니다. ”

(글/백기영(광주 각화초등학교 푸른숲선도원 지도교사))

## 나무사랑, 나라사랑

각화초등학교 6학년 3반 김병현

각화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나무에 상처를 내지 않아야 합니다. 나무에 상처를 낸다는 것은 나무를 파버리거나 꺾어 버리는 것을 뜻합니다. 나무에 상처를 내면 나무가 산소를 만들지 못해서 우리 주변에 깨끗한 공기가 없어지고 이산화탄소 등 나쁜 공기만 가득 차서 우리는 숨을 쉴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작년에 저희 집 안에 아버지의 담배연기가 가득 차서 숨쉬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집 한쪽에 식물을 많이 심었더니 담배연기가 많이 사라지고 공기가 환층 맑아졌습니다. 이처럼 식물이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무를 심어야 하고, 심기 어려우면 나무를 보호하기라도 해야 하는데, 제가 저번에 산에 올라갔을 때 그곳에 나뭇가지가 부러져 있거나 심지어 줄기 채 부러진 나무가 있었습니다. 이런 나무들은 자연 재해이기보다도 사람들이 일부러 나뭇가지를 부러뜨리거나 나무를 발로 차서 부러진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나무를 부러뜨리게 되면 언젠가는 나무들은 사라지게 됩니다. 나무들이 사라지게 되면 우리들 뿐만 아니라 아무 죄가 없는 의 동물들한테까지도 피해가 갑니다. 상처가 나거나 꺾어진 나무들을 보면 언젠가는 나무들이 사라져 버릴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나무의 입장이 되어보면 반대로 나무가 우리 몸에 상처를 내는 것과 같습니다. 나무도 우리와 같은 한 생물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무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나무는 언제나 우리가 숨을 쉴 수 있게 산소를 공급하여 주며 우리 주변을 아름답게 꾸며줍니다. 그렇게 때문에 우리도 나무에 상처를 내지 않고 나무를 돌봐 주어야 합니다.